

세계 최고의 '팡팡쇼'... 남자배구 진수 맛본다

광주일보 주관 '월드리그' 22~24일 영주실내체육관서

한국·이탈리아·미국·프랑스 4개국 100여명 선수 참가

배구월드스타들의 화려한 스파이크가 광주를 수놓는다.

세계 배구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2012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주 영주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FIVB(국제배구연맹)가 주최하고 대한배구협회, 광주시배구협회,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C조에 포함된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4개국 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한국은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린 1주차 3경기에서 모두 5세트

폴세트 점수를 벌이고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3패를 기록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 나온 석연찮은 관전이 아쉬웠다.

프랑스에서 열린 2주차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폴세트 점전 끝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며 5연패 뒤 승점 5점을 쟁겼다. 20년만의 이탈리아전 승리였다. 한국은 1992년 월드리그 이후 이탈리아전 22연패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 2진을 파견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20년만의 귀중한 승리를 쟁겼다.

6경기 만에 나온 승리로 분위기를

살린 한국은 안방에서 3주차 경기를 치른다.

22일 오후 2시 한국과 프랑스의 대결을 시작으로 3주차 경기가 막이 오른다. 오후 4시30분에는 미국과 이탈리아가 대결을 갖는다.

23일에는 한국-이탈리아(오후 2시), 프랑스-미국(오후 4시30분)이 맞붙고 24일에는 한국-미국(오후 2시), 프랑스-이탈리아(오후 4시30분)의 경기가 진행된다.

지난해 월드리그까지는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됐지만 올해는 광주시가 단독 유치하면서 4팀이 벌이는 풀리그 6경기를 모두 영주체육관에

서 관람할 수 있다.

광주에서의 열전이 끝난 후 4개 팀은 미국 달라스로 이동해 7월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시작되는 결선 무대를 위한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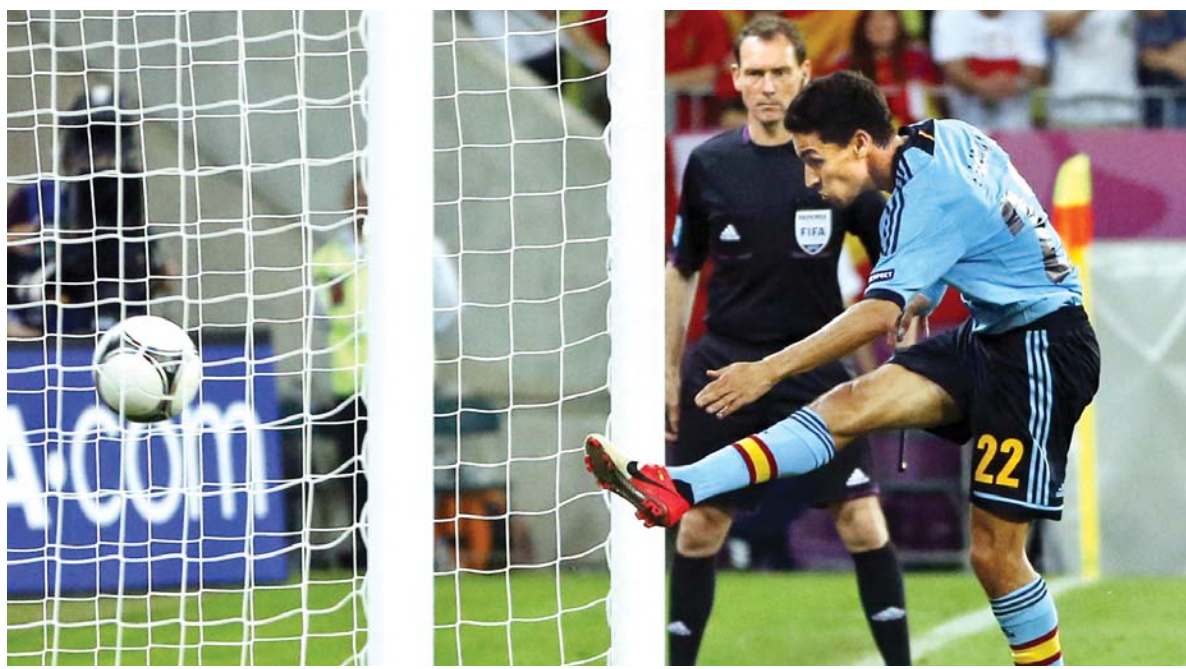
한편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는 세계 남자배구 활성화를 위해 FIVB가 창설한 세계 최고의 남자배구대회로 올 시즌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브라질 등 세계 최정상급 16개국의 국가대표팀이 참가해 57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면서 홈·어웨이 경기방식이 아닌 같은 그룹에 속한 팀들이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그 결과를 합산해 결선에 진출하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정상급 배구 선수들이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사진은 한국의 송영근이 지난 18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2주차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는 모습. <FIVB 제공>



“골키퍼 어디 갔수?” 19일(한국시각) 새벽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스페인과 크로아티아 경기. 후반 44분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받은 스페인 나바스가 노마크상황에서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악동의 입을 막아라”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발로텔리가 쇄기골을 성공시킨후 인종 차별 세리머니를 하려하자 동료인 보누치가 입을 막으며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라이커를 뺀 축구 전설>

스페인 '제로톱'의 핵 이니에스타 날다

유로 2012 C조 ... 스페인 1위로 8강 진출

이탈리아, 카사노·발로텔리 골 극적 티켓

스페인에 계속해서 공을 돌렸다. '티키타카(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듯 패스를 하는)' 축구. 경기는 막판으로 치닫고 스코어는 0-0. 이대로 끝나면 8강 진출이다. 비거도 되는 경기. 스페인은 급할 게 없다.

크로아티아는 달랐다. 승점 4로 동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뒤진다. 타 경기장에서는 이탈리아가 아일랜드에 2-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이대론 탈락이다. 비거더라도 골을 넣고 비겨야 한다.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릴 마지막 역습 찬스를 노리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승부가 결정났다. 후반 44분. 교체로 들어온 '가짜 9번' 파브레가스야 아르 정면에서 로빙 패스를 문전으로 올렸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뚫은 이니에스타가 필적 날아 가슴으로 공을 트래킹 했다. 골키퍼와 1대 1. 아니, 동료 나바스와 함께 2대 1. 이니에스타는 직접 슈팅하지 않고 무인지경에 있던 나바스에 공을 연결했다. 나바스가 텅 빈 골문에 공을 차 넣으며 게임 끝. 스페인 1-0 승.

'제로톱' 전술이 낳은 작품이자 스페인 축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절호의 골찬스에서도 육신내지 않



이니에스타

고 나바스에 패스한 이니에스타는 이번 유로 2012 최고스타. 각종 축구 전문 사이트 선수 평가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다. 170cm 키에 몸무게 65kg, 왜소한 체구지만 어떤 선수와도 몸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과르디올라가 사비 에르난데스에 게 말한 16세 이니에스타에 대한 평가. "너(사비)는 나를 은퇴시키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아이(이니에스타)는 우리 모두를 은퇴시켜버릴 거야."

이니에스타는 뛰어난 공간 창출, 부드러운 볼 터치, 넓은 시야와 영리한 지능, 환란한 패싱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다. 수 십 미터를 드리블해도 공이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니에스타의 최고 장점은 바로 성실함과 이타적인 플레이. 기록이 없는 꾸준함과 완벽한 골 찬스에서도 동료에게 1%의 가능성이 더 있다면

순위	승	패	승점	골득실	8강	
① 스페인	2	1	0	7	5	진출
② 이탈리아	1	2	0	5	2	진출
③ 크로아티아	1	1	1	4	1	탈락
④ 아일랜드	0	0	3	0	-8	탈락

주저 없이 패스하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경기가 끝난 후 이니에스타는 "크로아티아의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했다. 마지막까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파브레가스와 나바스에 감사 한다"며 상대팀 선수들과 동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C조 이탈리아-아일랜드의 경기에선 이탈리아가 카사노의 결승골과 발로텔리의 쇄기골로 2-0승리, 조

2위로 8강에 합류했다.

전반 34분 피를로가 올린 코너킥을 문전엔 있던 카사노가 달려들며 백헤딩 슈. 공은 아일랜드의 골키퍼 기본의 손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더프가 다급하게 공을 걷어냈지만 이미 골라인을 통과한 뒤. 후반 45분에는 발로텔리가 문전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를 환상적인 눈스톱 시저스키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악동 발로텔리의 골 세리머니가 동료 보누치에 의해 저지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2-0으로 이기고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 선수들은 크로아티아가 스페인에 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꺼번에 그라운드에 뛰어나와 열광하고 8강 진출의 기쁨을 나눴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 모집

▶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두번째 산행 6월 21~22일(무박2일) / 주왕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후원 | 광주일보사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